**명천문화관광재단 직무수행 계획서**

직무 : 경영지원

**1. 개요**

  주5일제가 정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일만 하기보다는 일한 후 느끼는 휴식과 여유를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라는 어느 광고의 문구처럼 주말이 되면 산으로 들로 떠나는 것이 일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아등바등 살았다면 이제는 삶의 여유를 느끼고 인생을 즐기기 위해 돈을 번다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휴식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여 다시 일터로 돌아갔을 때 더욱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돌아보기 위해서 등 여러가지 이유로 여행, 휴식, 여가를 선호하다보니, 그만큼 관광산업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천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통해 이러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어,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계기를 가지고자 합니다.

**2. 목표**

  명천은 예부터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지명은 동쪽에 있는 불로장생의 신선세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왕산과 주산지가 빚어낸 아름다운 절경과, 천혜의 경관에 깃든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지역입니다. 이를 많은 이들에게 알려 명천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명천이 명품휴양관광지로 거듭나는데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명천 지역 문화 관광을 살리고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나아가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추진 계획 : 명천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최대한 살린 체험 프로그램 개발**

1) 명천 고택과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 인근 지역인 안동 하회마을이나 경주 양동마을과 연계하여 이 세 고택과 서원, 사당, 가옥 등을 탐방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 개발.

- 각각의 고택을 직접 보고 체험을 할 때마다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체험자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명천 고택과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을 한꺼번에 둘러볼 수 있는 주요 코스를 개발 -> 이 세 패키지를 모두 탐방할 경우, 그곳에 위치한 고택 중 한 곳에서 숙박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함. 이때, 숙박비나 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의 혜택도 마련하여 보다 많은 이들이 방문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함.

-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이 직접 민박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주 한옥마을처럼 외국인들의 방문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

2) 주왕산 국립공원 방문을 통한 체험 프로그램

- 주왕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자연학습장, 야영장, 오토캠핑장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에 개최하였던 ‘캠핑족들을 위한 캠핑축제’와 같이 특정 타깃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의 다양화 추진(캠핑족 장기자랑, 요리대회, 산행대회 등).

- 주왕산은 경북 제일의 명산으로 다양한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대전사를 비롯한 사찰, 계곡과 폭포와 주산지까지 이어지는 주왕산 핵심코스를 가지고 캠핑족을 위한 산행대회나 그 외 주왕산에 방문한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산행대회를 개최하여 등반에 완주한 관광객들에게 기념촬영을 해주거나 산행대회 우승자 기념 선물 (명천과 관련된 제품) 증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의 참여를 유발토록 함.

3) 사과와 약수의 만남

- 명천의 특산품인 사과는 청정 공기와 맑은 물이 흐르는 전국 최고의 무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매년 명천 사과축제를 통해 최고 품질의 명천 사과를 홍보, 판매하고 있음.

-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체험 활성화를 통해 가족 단위의 사과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며, 직접 농산물을 채취, 시음하고 사과를 재료로 한 음식을 만드는 등, 집단 체험 프로그램으로 명천 사과 홍보.

- 사과 축제와 연계하여 물이 좋기로 유명한 명천의 얼음골 약수터, 달기약수탕, 신촌약수탕 주변의 닭백숙 전문 식당과의 제휴를 통해 관광객들이 보양식으로 꼽히는 닭백숙 음식을 접하도록 유도하고, 된장이나 간장, 청국장, 고추장을 직접 담그는 체험 등을 활성화시켜 많은 관광객들이 다양한 흥미를 통해 찾을 수 있도록 함.

4) 명천 진보면의 지역테마사업 추진

- 명천 진보면에는 김주영의 소설 객주를 테마로 한 '객주 문화 테마촌'이 있고, 신촌 달기약수터, 야송미술관, 옹기도마, 양수발전소, 청솔 꽃돌전시관이 있어 이를 테마로 한 진보면 지역 테마 패키지 개발.

- 매년 음력 3월말 개최하는 달기약수령천제 행사와 병행하여 테마별 관광코스나 1박 2일 일정으로 한 관광코스 등을 개발하여 약수체험은 물론, 보다 쉽고 짜임새있게 진보면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프로그램 개발.

- 마찬가지로 코스별 체험을 완료한 경우, 스탬프를 찍어주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하나의 관광지 입장시 다른 관광지 입장료 할인 혜택이나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더 많은 체험을 유도하는 방안 마련.

5) 명천 도자체험

- 명천 백자는 문경백자와 함께 경북지역의 양대 산맥을 이룬 조선시대 대표 생활도자기로, 흙 대신 ‘도석’이라는 돌을 빻아 만들어 다른 도자기보다 기벽이 매우 얇고 가벼운데다 설백색의 아름다운 흰색을 띠고 있음.

- 도자기 산업의 메카인 경북의 두 도시인 명천과 문경을 연계하여 명천 백자와 문경 백자의 합동 전시회나 합동 작품을 보고 명천백자와 문경백자의 비교 체험이 가능한, 백자(도자기) 만들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찻사발 축제나 도자기 관련 전시회에 명천과 문경의 실력 있는 도예가들을 초청하여 도자기 체험을 활성화 시키고, 우수한 명천백자와 문경백자를 사람들에게 홍보하도록 함.

**4. 기대효과**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절한 예산 계획의 집행이 가능하다면 관광객들의 참여가 늘어나 명천을 많은 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일련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동안 쌓아온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경영지원팀의 한 구성원으로서 재단의 행정, 회계 업무와 사업운영을 위해 업무를 적극 지원하는 등 꽃피는 문화관광지 명천이 되는데 앞장서서 명천이 더욱 발전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